

교구설정 100주년에 즈음하여

— ‘다시 새롭게’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 설정 100주년이 되는 2011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교구를 위해서 참으로 거룩한 은총의 해가 되기를 모든 교구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구의 100년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교구의 삶의 총체인 것입니다. 이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교구의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구설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입니다.

1911년 대구대목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제반 사정이 너무나 열악하였고 기반 시설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구장이 머물 집도 없었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날 약 45만 명의 신자와 422명의 사제, 156개의 본당을 거느린 큰 교구로 발전하여 “은 세상에 가서 ...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 양성을 위한 대신학원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회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이 교구 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역대 교구장님들을 비롯한 교구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복음의 빛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데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은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이와 같은 역할에 늘 호의

적이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현재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제일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며 갖가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맞아 교회가 이 사회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가 사회를 복음화하기보다 오히려 사회에 이끌려간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3년 동안 교구설정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해마다의 주제를 ‘성찰의 해’, ‘비전의 해’, ‘도약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변치 않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쇄신되어 정체성을 확립할 때 비로소 복음화의 비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 복음화를 위해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 새 복음화’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교구민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목자들과 교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교구가 ‘새 시대 새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새 시대 새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교회 쇄신을 위하여 펼쳐 온 영성 운동은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신앙 회복 운동이기에, 100주년을 기하여 더욱 확산시키고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과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반(反)복음적 풍조가 퍼지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쇄신되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차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교구가 100주년을 맞으며 추진하는 세 가지 기념사업인 제 2차 교구 시노드와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건립, 그리고 교구 100년사 편찬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교구민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념사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지만, 각별히 여러분의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기념 대성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생명사랑나눔 운동’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복음정신에 한층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민이 앞장서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각종 후원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 기구를 조직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고통 받는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100년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

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정성은 2011년 5월 15일에 봉헌하는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경축미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의 중심인 이 경축미사는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감사제인 동시에 전 교구민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새로운 계약의 기념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경축미사에 바쳐지는 “산 제물”(로마 12,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든 이웃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널리 미치도록 합시다.

경축 행사는 그 중심이 되는 경축 미사와 더불어 100년의 역사를 조망하는 강연회와 전시회, 나눔의 신비를 드러내는 바자회와 음악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축제, 자매교구와 협력 교구를 비롯한 교회 관계 인사들과의 만남의 장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져 일주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을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 교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은총의 100년은 우리에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밀알이 되어 죽을 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 또한 은총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손길을 느끼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100년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0년 11월 28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조환길 타대오

주일의말씀

신앙인의 별명은 기다리는 사람

이기수 비오 신부
가창성당 주임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여행자는 버스와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시험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삶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대림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는,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둘째, 세말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일 년 열두 달이 모두 대림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인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기다림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를 되새기면

서 그 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가 들이닥쳤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태 24,38-39) 들에 있는 사람들, 뗏돌질 하는 여자들처럼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닥칩니다. 엄청난 파멸을 몰고 왔던 홍수는 일상에 안주하는 안일한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무관심과 평범한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짓이나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때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깨어 기다리며 순간순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별명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생명의말씀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마태 24,42 참조

이사 2,1-5 로마 13,11-14ㄴ 마태 24,37-44.

9. “이제 대구에도 주교가 살고 있습니다.” – 주교관 건립

문화홍보실

드망즈 주교님께서 처음 대구에 부임하실 때에는 교구장이 머물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주교님께서서는 일반 가정집을 세내어 머무시면서 사목을 하셨습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 생각하신 주교관 건립 사업은 단순히 당신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주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명색이 주교인데 자기 집도 없어서야 되겠는가? 번듯한 사무실과 사택이 있어야지.”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드망즈 주교님의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거의 매일 사목 일기를 쓰셨는데, 주교관을 건립하는 동안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적고 계십니다. “오늘 기초를 놓았다 ... 이제 1층 높이로 올라가고 있다 ...”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교관이 완공되었을 때, 현관문에 낱자를 새기십니다 : 1913년 12월 23일. 마치 “이제 대구에도 주교가 살고 있습니다. 주교의 집은 이곳입니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서는 공사가 끝나고 축복식을 하던 날의 일기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사도의 후계자로서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지방에 주교가 파견되었

고, 그가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일하고 마침내 뼈를 묻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건물이 바로 주교관입니다. 예전에는 ‘주교택’이라 불렀던 이 집에서 사제들과 선교사들이 교구장과 함께 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의논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내리신 명령, 한반도 남쪽에 당신 말씀을 전하라는 복음화 과업의 상징이자 전진기지가 바로 드망즈 주교님께서 생각하신 주교관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주교관이 완공되던 날 그 집에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로 생긴 목포 본당으로 사목방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영호남 전역을 다니시며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교우들을 만나셨습니다. 주교님의 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분이 주교택에서 과연 며칠이나 주무셨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서는 안락하고 남 보기에 그럴 듯한 거처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화의 기지가 필요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주교관을 지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느님 사업에 봉사할 때는 세속의 판단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일을 모든 것에 앞세웁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 물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함께 깨어있읍시다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대림 제1주일

입당성가

91 구세주 빨리오사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리라.

파견성가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영성의 향기

:: 변하지 않는 행복

코헬렛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고 사람이 자기 수고의 열매를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 지상의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행복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지상에서 주어졌던 기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이 세상이 끝난 다음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기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 매달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느님 없이 지내야만 합니다.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헤아리게 되면 그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재물이나 명성이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것을 찾게 됩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으로 건너가는 문이며, 지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을 간직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헤어짐 없는 우정을 즐기게 되고,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기억할 것과 잊을 것



세상에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 “칭찬을 들으면 바로 잊어버릴 것. 험담을 들었어도 바로 잊어버릴 것. 두려움과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지 말 것.” 그 반면에,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 “약속한 것이 있으면 천금같이 무겁게 여기고 글자 그대로 지킬 것. 남의 덕을 입은 일이 있으면 고마운 줄을 알고 하나하나 잊지 말 것. 내게 닥친 복과 행운을 모두 은혜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할 것. 무엇보다 항상 바르시고 무한히 착하신 분께서 나를 마음에 두시고 귀여워하신다는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 것”

- 윤희은 글입니다 -

- 행사 -

대구 가톨릭 음악원

오르간 전경반 교수 연주회

- 일시: 11.29(월) 19:30
- 장소: 계명대학교 아담스채플관

- 성소 / 피정 -

2011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성소 피정

- 대상: 중3~고2(내년 기준)
- 일시: 2011.1.4.(화)~7(금) 3박4일
- 장소: 제주도 성지 도보순례
- 신청: 12.16(목)까지, 선착순: 70명
- 참가비: 33만원(1인10만원 성소담당 지원)
- 문의: 250-3071 / 010-6776-3071, 본당사무실

대림 특강(하루피정)

- 제목: 성숙한 신앙생활
- 일시: 11.29(월) 9:30~16:00
- 장소: 대안성당 017-501-9713
- 강사: 김길수(사도요한)교수
- 미사: 최홍길(레오)신부

대림절 선교 피정

- 일시: 12.6(월) 10:30~15:30, 계산문화관 1층
- 대상: 선교대학 전수료생 및 동참자실 분
- 신청: 선착순 100명(무료)
- 지도신부: 이경호, 손무진, 이판석
- 문의: 781-6100 / 010-3066-5971

예수마음의 기도 1일 피정(회비:1만원(식사제공))

- 일시: 12.5(일) 08:40~16:00, 다산성당
- 강사: 권민자 수녀(성심수녀회)
- 문의: 다산성당 054)955-0961

- 모집 / 교육 -

2011년도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모집

- 모집기간: 12.1(수)~선착순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850-3056

12월 영아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12.2(목) 10:00~12:00, 월2만원
- 과정: 화코린토2서·신명기,목파태오·창세기
- 문의: 관덕정 254-0151/010-2578-5535

2011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편입생모집

- 원서접수: 12.13(월)~27(월)
- 모집학과: 회화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 문의: 032)830-7002(www.iccu.ac.kr)

평화의 손길 북한 자수전시전이 있는

제14차 청소년영성포럼

- 일시: 12.11(토) 13:30~19:30(caum, 카페 우아청 참조)
- 장소: 살레시오회관관 7층대강당
- 참가비: 2만원(석식포함)
-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2)832-2654

통합예술치료사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상시모집

푸른평화예술치료겨울방학캠프

- 일시: 12.27(월)~30(목) 3박4일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중장년층 겨울 수도생활 체험학교

- 주제: 베네딕도의 평화, 참가비: 5만원
- 일시: 12.30(목)14:00~2011.1.1(토)15: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35-55세 남녀 일반인, 선착순: 60명
- 문의 및 접수: 왜관과정의집 054)971-0722

세계 청년 대회 참가 신청

- 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http://club.cyworld.com/2011wyd>

가톨릭근로사회관필리핀영어캠프

- 장소: 마닐라 St. Joseph College
- 일시: 2011.1.2(일)~31(월)
- 대상: 초3~중3, 선착순: 20명
- 특징: 현지초등선생님 직접수업
- 문의: 253-1313 / 010-9355-5843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 일시: 2011.1.12(수)~18(화)
-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경태(야고보), 박상대(아오스당)

성탄위문품 신청 접수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11.30(화), 접수: 본당사무실
-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전경포함)

※훈련병(교육병포함), 하사관, 장교제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 됨)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임양원.com>)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한국SOS어린이마음 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음 2층강당	미사회 미사	12월 3일(금) 오후 2시	성모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2월 2일(목) 오후 2시	성모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12월 4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내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12월 4일(토) 오후 2시	성모당

아가다 요양센터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복지옹구판매 및 대여

☎ 795-4242 / 815-2700

- 정성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 고팔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하면 어느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척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 · 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함(논나)

20년 역사의 SHINCHUN 이 운영하는

DINE ON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 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 진료)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 일 외과 의원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 희 갑(바오로)